목포자연사박물관, 오는 9일 재개관

노후 전시실 대규모 개편…실감콘텐츠 기술 적용

"전남 제일 최첨단 문화공간으로 위상 높여갈 것"

목포자연사박물관이 오는 9일 재개관한다.

목포자연사박물관은 지난해 11월부터 노후 전시실 대규모 개편 및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기술 적용 등 전면적인 리뉴얼 공사를 진행했다.

박물관은 입구부터 관람객을 배려한 쾌적하고 친절한 안내시스템을 위해 안내데스크를 개선했다. 기존 로비에 있었던 공룡알 둥지 화석은 새로 조성한 공룡알 둥지화석관으로 이동해 체험과 관람이 공존하도록 했다.

2층의 육상생명관은 생명의 나무 아래에서 동물과 식물, 곤충을 조화롭게 전시·연출했으며, 기획전시실 및 체험존을 새로 조성해 관람객 편의 공간을 확충했다. 또한 노후된 전시실 조명, 영상시설, 전시패널 등을 교체하고 전시물도 재배치 했다.

박물관 곳곳에 실감콘텐츠 기술도 적용했다. 로비에는 다양한 생명체와 관람객이 공존하는 증강 현실 사진관이 설치돼 포토존으로 이용되며, 중앙홀 벽면에는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펼쳐진다.

2층에는 생태풀이 조성돼 다양한 수상 생물이 살고 있는 연못 생태계를 거닐며 상호 교감하는 인터액티브 콘텐츠가 마련되고, 박물관 전시물과 교감하는 체험형 AR 어플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노후되고 정적이던 박물관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박물관과 교감할 수 있는 전남 제일의 최첨단의 문화공간으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함평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3년 연속 선정

해보면 하모·운곡마을 생활인프라확충·주거환경 개선 기대

함평군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해보면 하모·운곡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신광면 보전, 2020년 함평읍 용촌·모산, 나산면 신촌마을이 선정된 데 이어 3년 연속 선정이다.

이 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해예방, 위생·안전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군은 사업에 선정된 해보 하모·운곡마을에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슬레이트 지붕 교체, 마을안길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노후담장 수리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건강돌봄서비스 등 휴먼케어와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도 포함된다.

이상익 군수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동하는 마을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었다"면서, "조속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여건이 취약한 마을들을 지속 발굴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무안군, '청년 창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2일까지 15개 팀 선정…팀당 150만원 지원

무안군은 오는 22일까지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3명 이하) 15개팀을 모집해 예비창업 패키지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민간기업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아이템의 구체화와 경쟁력 확보를 통한 건실한 청년 창업가 육성에 나선다.

사업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창업보육전문기관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실시할 계획으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도내 창업·투자 전문 멘토와 연계 후 최종 평가를 통해 15개팀을 선정한다.

아이템 내용에 따라 '공모사업계획서 컨설팅' 10개팀, '투자유치설명회 컨설팅' 5개팀으로 분류해 비즈니스 모델 수립, 모의피칭, 모의 투자유치설명회(IR) 등에 필요한 창업 사업화 전문 컨설팅 비용으로 팀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자로써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청년창업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군 또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minj1028@ccei.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창업 정보제공과 투자자 연계지원 강화로 초기 사업비와 아이템 개발비용 감소효과가 기대된다"며"창업에 관심있는 관내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전남 최초 모바일 금연클리닉 '금연ON' 운영

6개월 금연시 기념선물 제공

영암군은 전남 최초로 온택트 금연 프로그램인 '비대면 금연클리닉 금연ON'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금연클리닉 등록자 감소와 더불어 기존에 금연클리닉 등록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거나 여러 가지 문항에 전화로 답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기에 올해에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택트 방식(금연ON)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금연물품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전화와 메신저 등 비대면으로 금연상담사의 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영암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6개월간 금연 성공 시 기념선물이 제공된다.

가입방법은 스마트폰 앱에서'금연ON'을 검색하거나 간편하게 QR코드를 통해 설치한 후 거주 지역을 '영암군'으로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영암군은 개별가입과 병행해 홈페이지 등 QR코드를 추가해 모바일 금연클리닉 '금연ON' 앱을 누구나 손쉽게 설치·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은 코로나19 감염 및 부작용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 물무산 행복숲, 이색 산불 예방 홍보

잠수부·우주인 캐릭터 등 활용 홍보물 4건 설치

영광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유명 산림휴양지인 물무산 행복숲에 잠수부와 우주인 캐릭터 등을 활용한 이색적인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물무산 행복숲은 2018년 3월에 준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힐링장소로 2020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가을 비대면관광지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용객이 2020년에는 12만명에 이를 정도(2019년 6만 명)로 영광군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물무산 행복숲 둘레길에 잠수부와 우주인이 산소통 대신 소화기(消火器)를 메고 있는 이미지를 매칭해 산불예방에 강조점을 두었다. 2017년 물무산 행복숲 조성 당시 산불로 인한 피해목에 "산불로 까맣게 타서 너무 아파요!"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이용객들의 산불에 대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홍보도 실시했다.

또한 등산객의 발걸음이 잦은 곳에 금연의 경종을 울리는 상황을 연출하여 흡연자들의 금연 결심에 마중물이 되어 주는 금연의 종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현재 물무산 행복숲에는 주요 지점에 34개의 소화기(消火器)가 설치되어 있다.

김준성 군수는 "행복한 삶의 일상공간이 되어가는 관내 물무산 행복숲을 산불로부터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모두가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